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6. 9. / (총 10매)			
중 앙 사 고 수 습 본 부 전 략 기 획 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윤 동 빈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 앙 사 고 수 습 본 부 환 자 시 설 1 팀	팀 장 담 당 자	김 현 주 이 승 목		044-202-2080 044-202-371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1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1,328개소 △유흥시설 5,119개소 등 41개 분야 총 21,157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304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전남에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였고, 경남에서는 PC방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11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1개반, 589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991개소(78%)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1,124개소 중에서 손소독제 비치 미흡, 환기 대장 작성이 미흡한 사례 등 2건이 발견(강원)되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현장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어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주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밀집지역(별집촌)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에 이어,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합바식당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방역지침, 물품지원, 점검계획 수립 등 방역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 2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6월 8일(월) 오후 6시 기준, 3,293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3,875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41,917명\*이다.

\* 국내 발생 9,876명, 해외 입국 32,041명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2.4% 설치되었다.

- 어제(6.8)는 드라이브, 격리지 불편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3명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1명이며, 이 중 9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3개소(2,53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70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8일) 입소 188명, 퇴소 191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88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 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3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일

- 지난 3월 2일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서 처음 개설한 생활치료센터가 6월 9일로 개설 100일째를 맞이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 지원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연수원, 교육원 등에 의료진 및 운영 인력을 배치하고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로서 치명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총 29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4,915명 환자가 입소했고, 이 중 3,955명이 완치 격리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의료인력 총 860명, 6월 8일) 의사 345명, 간호사 270명, 간호조무사 135명, 방사선사 20명, 기타(약사, 심리상담, 역학조사관 등) 90명

\*\*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41%(8,271명 중 3,391명)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대구, 경북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여 병상 부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부분 운영을 종료하였다.

- 현재는 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1개소 45실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현재 13명이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 국적 환자도 한국인 환자와 동등하게 생활 지원과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축구협회 협조로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외국인 환자용 생활치료센터로 개설·운영하였고 4월 30일부터는 우리금융그룹의 협조로 안성 우리은행 연수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금까지 외국 국적의 입소자는 14개국 43명으로 국적별로는 영국과 미국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각각 5명, 프랑스 4명, 이탈리아 2명, 독일, 크로아티아, 캄보디아, 네덜란드, 스페인, 남아공, 호주, 중국, 인도 각 1명 순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수도권 확산 등에 대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즉각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공동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17개 시도는 유사시 공공 연수원 등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가능한 시설 총 33개소를 확보하였고, 입소 환자 관리를 위한 종합 병원급 이상의 협력병원 17개소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표준화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모형을 6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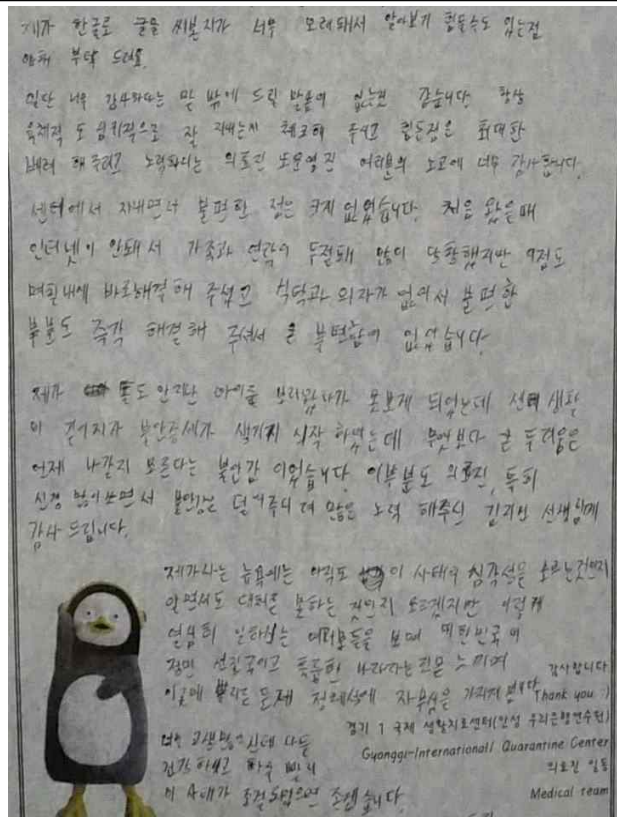
- < 붙임 >
1. 생활치료센터에서의 기록
  2. 감염병 보도 준칙
  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붙임1

## 생활치료센터에서의 기록



<사진1> 퇴소시 감사편지



<사진2> 집에서의 돌잔치

우선 제가 한글로 글을 써본지가 너무 오래되어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지내는지 체크해 주시고, 힘든 점은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의료진 및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센터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인터넷이 안돼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어 많이 당황했지만, 며칠 내에 바로 해결해 주셨고, 식탁과 의자가 없어서 불편한 부분도 즉시 해결해 주셔서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돌도 안된 저희 아이를 보러왔다가 입국시 확진이 되어 못보게 되었는데, 센터 생활이 길어지면서 불안증세가 생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큰 두려움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의료진, 특히 신경 많이 쓰면서 불안감을 덜어주시려 애써주신 김OO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내고 있던 뉴욕에는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대처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고 훌륭한 나라임을 느끼며 이곳에 뿌리를 둔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데, 다들 건강하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OO 드림.

※ 지난 5월 23일 퇴소하신 분의 감사편지

- 4월 23일 자녀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되어 OO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수 회에 걸쳐 양성, 음성, 미결정이 반복되어 격리기간이 연장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짐. 다행히 5월22일 음성, 5월23일 18시경 연속 음성 판정으로 익일 자녀 돌잔치에 참석 가능토록 당일 20시 조기 퇴소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